

저는 UC Berkeley 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과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것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수업

저는 천문학, 지질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과목을 각각 하나씩 수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틀은 한국 대학에서 들었던 수업과 비슷하였습니다. 버클리에서 수업을 듣기 전에는 세계적인 명문대에서 제가 잘 할 수 있을 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도 보통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엄청 뛰어나거나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다만 미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GEOG 40 Introduction to Earth System Science

4 학점 과목으로 지구과학 심화 과정과 같은 과목입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물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과목이었는데 주로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나는 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본인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재미있었습니다.

ASTRON 10 Introduction to General Astronomy

4 학점 과목으로 일반천문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주로 태양계, 우리은하, 우주와 이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은 주로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직접 실험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학생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하였습니다. 비록 주제가 사소하고 이상한 것이더라도 진지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이 한국과 매우 달랐던 것 같습니다.

ME 109 Heat Transfer

3학점 과목으로 열전달이라는 수업입니다. 포스텍 기계과에 같은 수업이 있어서 비교해 봤는데 숙제의 로드나 시험의 수준은 서로 비슷하였습니다. 이 수업에서 느낀 점은 대학원생 조교의 역할이 한국에서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원생 조교들은 숙제나 시험을 채점하는 일이 대부분인 반면 미국에서는 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험 문제를 대학원생 조교가 낼 정도로 수업에 대한 책임이 컸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버클리 대학원생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CS 9A Matlab for Programmers

2학점으로 Matlab 이라는 컴퓨터 언어를 공부하는 이 수업은 가장 특별했던 수업입니다. Self-paced course 로 정해진 수업시간이 없이 스스로 공부하여 과제를 하고 퀴즈, 시험을 치는 과목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수업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 수업이었습니다.

2. 운동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weight training 에 관심이 생겨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weight training 에 대한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Lifting 을 할 때 족을 힘을 다하여 들어올리는 것을 보면 다치지 않을 까 걱정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장애인 분들도 휠체어를 타고 와서 운동을 하였는데 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3. 홈스테이

저는 기숙사에서 지내지 않고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홈스테이를 하였습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제가 미국 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 하고 다르게 집 근처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일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 보다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지만 학교와 떨어진 곳에서 통학을 하는 것도 나름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버스였습니다. UC Berkeley 근처에서 운행하는 버스인 AC Transit 을 이용하였는데 이 버스는 시간을 잘 안 지키고 버스가 올 시간이 지나도 안 오다가 갑자기 같은 버스 두

대가 동시에 오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통학을 하게 된다면 자전거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거나 DMV office 라는 곳에서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서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4. 팁

미국 생활에서 가장 적응 하기 어려웠던 것은 식당에서의 팁 문화입니다. 각 테이블마다 담당하는 웨이터가 정해지게 되고 주문을 이 웨이터에게만 하는 것도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5. 여행

샌프란시스코, LA 등 여러 곳을 여행 하였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타호호 입니다. 혼자 여행을 간 타호호 입니다. 버클리에서 타호호를 가는 방법은 차를 렌트하거나 암트랙이라는 기차와 버스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여행하는 관계로 차를 렌트하지 않고 기차와 버스를 타고 갔는데 기차로 한 시간 반 정도 간 뒤 버스로 갈아타서 약 두 시간 정도 더 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타호호는 고산지대의 눈이 녹아 생긴 호수로 물이 엄청 맑습니다. 파도가 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호수가 정말 큽니다. 경치 또한 아주 아름답고 애매랄드 빛 호수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치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기구와 보트를 타거나 자전거를 빌려서 호수 주위를 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어가 산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연어가 산란을 위해서 타호호로 되돌아 오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10월에 여행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11월 초에 가서 아쉽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친구들과 간 여행도 재미있지만 적어도 한번은 미국에 가시게 되면 혼자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기유학 후기를 마치며, UC Berkeley 에서의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버클리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대학원 진학에 대한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유학에 관심이 있으신 학우들은 단기유학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